

사람의 거리



곽병찬
한겨레신문 편집 부국장

참 재미있다. 친구들이 찾는 용건으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저 놀라고 친구를 부른다면 그건 초등학생쯤 될 것이고, 축구나 농구 등 놀이의 대상이 특정되면 중·고등학생쯤 될 것이다. 대학생이나 20대의 경우라면 술이나 한 잔 하자는 것일 테고, 20대 후반이라면 대개는 자신의 결혼식을 알리는 청첩일 것이다. 30대와 40대 초반까지는 친구 만나기가 가뭄에 콩 나듯 한다. 가정도 안정시켜야 하고, 직장에서도 기반을 잡아야 한다.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 서서히 친구들의 부름이 많아진다. 내게 오는 친구들의 소식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부음이다. 우리 나이 반백에서 세 해가 빠지는 터이니 부모님의 나이는 일흔 중반일 것이다. 부음 전갈이 도착해질 때면 자식들 결혼식 청첩이 올 차례이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 보내고, 이제 본인이 낳아서 기른 자식들을 세상에 내어 놓는 것이다.

따뜻한 밥 먹고 왜 서늘한 이야기를 풀어놓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게다. 바로 엇그제도 어머니를 여윈 친구의 상갓집에 다녀온 터이니, 달리 화제가 없다. 그러나 중장년의 그늘 혹은 중년의 낯두리나 읊조리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상에 빠지기 쉬운 중장년의 정서와 비교해, 오래고 긴 이별을 눈앞에 둔 어른신네들의 의연함을 전하고 싶다.

일전에 이돈명 변호사님을 뵈 기회가 있었다. 인터뷰를 핑계삼은 것이지만,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뵈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올해로 82살이니,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을 훨씬 지나쳤다. 어른들이 즐겨 쓰는 '여성'에 해당하는 삶이다. '그리도 천천히 걸었는데, 참 멀리도 오셨고 참 높이도 오르셨다.' 선생

은 50대 이후 인권변호사로서 칼날위의 삶을 살아왔다.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를 꿈꾸며, 서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걸었다. 그는 자신이 인권대통령감이라고 꼽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이제는 죽어도 좋아'라며 후배 변호사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쳤다고 한다. 선생과 같은 분들의 헌신에 기대어 우리 사회는 모두가 사람답게, 함께 사는 세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천천히 걸었는데도, 참 멀리도 오셨다'는 느낌은 비단 이돈명 선생과 같은 명망가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평생 다락논을 오르내리며 4남매를 그릴 듯하게 키워내시고 엇그제 세상을 떠나신 여주의 친구 어머님, 올곧은 변호사로서 나름대로 존경받고 있는 만이를 포함해 5남매를 모두 출가시키고, 자신은 지금 병환으로 누워있는 회기동 친구 아버님 등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이 그랬다.

그분들은 한평생 집과 일터 사이를 오가며 살았다. 거기가 다락논이든 친구네 사과 과수원이건, 지치고 짜증날 법도 한 똑 같은 길을 평생 오갔다. 거기서 흘린 땀으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냈다.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도 않았다. 봄이면 꽃놀이, 가을이면 단풍놀이도 즐기지 못했다. 그저 땅과 땅 사이를 오갔을 뿐이다. 이제 그 앞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밤송이처럼 영그는 아이들이 즐비하다. 그가 걸어온 아주 먼 길의 거리를 보여주는 표시다. 사회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않아도, 재산이나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

어도 그분들이 오른 삶의 높이를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분들 앞에서 내가 걸어온 삶의 거리를 어렵게 계산해본다. 나는 바빠 걸었다. 아니 뛰었다. 하루에도 예닐곱번씩 차를 바꿔 타며 돌아다녔다. 해외도 적잖이 들락거렸다. 그러면 내가 걸어온 삶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걸까.

'밤새도록 달렸지만 사립문 안이더라'라는 말이 있다. 삶의 거리는 비행기 마일리지로는 계량할 수 없다. 직위로도 쌓아둔 재산으로도 할 수 없다. 느티나무가 제 자리에서도 아득한 높이와 너른 품과 깊은 연륜을 쌓아가듯, 동네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답 혹은 장터에나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도 삶의 거리는 아득하니 멀고도 깊을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 열심히 달리고 밤낮없이 뛰다. 국내에서 더 나아가 세계로 뛰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삶의 거리를 쌓아가고 있을까. 그들의 이혼율은 세계 최고이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개인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사립문 안에서의 삶이요 사립문 안에서의 행복' 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 아무리 운택해보여도 삶의 거리는 짧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

언젠가 나도 어느 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자식들이 친구들과 부모의 부음을 주고 받을 나이가 올 것이다. 그때 나는 '천천히 걸었으니, 참으로 멀리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PPFK

